



'한나절 풍경'

알록달록 색 잔치 임중호展 22일까지 예향회관

임중호씨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예향 회관에서는 색들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다. 색종이를 오려붙인 듯한 조형언어와 강렬한 원색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들은 시각적으로 관람객들을 압도한다. 화폭에 등장하는 여인, 고니, 꽃, 나비 등은 도드라진 색감으로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22일까지 열리는 전시에서는 검정톤의 작가로 불리는 임중호씨의 화려한 변신을 볼 수 있다. 임씨는 검정색을 과감히 끌어들이 독특한 남도의 풍경을 펼쳐보임으로써 주목 받았으나, 색의 중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채색으로 변신을 시도했다고 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광면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디자인적인 조형미와 화려한 색감 때문에 관람객들에게 산뜻한 청량감을 준다.

조선대 미대 출신으로 제21, 2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제10회 수채화공모대전, 전남도미술대전에서 특선했으며 한국·오스트리아 현대작가 교류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62-225-0049.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올해 최고 히트 공연은 뮤지컬 '캣츠'

올해 가장 히트한 공연은 뮤지컬 '캣츠'였다.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캣츠'는 69회에 걸쳐 10만8천700여 명의 관객을 동원, 객석 점유율 100%, 유료 객석 점유율 96%를 기록했다.

또 광주(1만 8천여명), 대구 대전 등 지방 투어까지 합칠 경우 '캣츠'는 총 140회 공연에 관객 20만7천 명, 평균 객석 점유율 96%, 유료 객석 점유율 91%, 매출액 169억 원을 기록했다.

잠실종합운동장 빅박스에서 공연된 태양의 서커스 '위킵'은 80회 공연에 17만2천명(객석 점유율 86%, 유료 객석 점유율 78%)의 관객을 모으면서 151억 원의 티켓 판매고를 올렸다

/연합뉴스

새로운 삶 아파트 문화 공동체 일궈가는 '광주문화유랑단'

문화·예술 함께하는 '이웃 사촌'



'광주문화유랑단' 회원들이 16일 광주시 서구 화정남초교 옆 놀이터에서 열린 '광주문화유랑단 활동 전시 및 아파트 파티'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위경기자 jwi@kwangju.co.kr

화정남초 재학생 12가정 모여... 문화 체험·유적 답사 작품 전시

작은 모임이었던 문화유랑단이 자신들의 활동상을 외부에 선보이기로 결정한 것은 아파트에 '이웃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뜻을 모은 이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서포터즈 시민문화 체험 프로젝트에 공모, 이번에 작품을 전시하게 됐다.

문화유랑단은 무한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감성과 나눔의 문화를 심어주기 위한 대안교육을 고민하는 공동체가기도 하다.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바람직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교육 강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홈스쿨링 등 '공동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부모들이 책읽기, 그림 그리기, 숙제 챙기기 등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것은 함께 하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죠. 경쟁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먼저 보여주자는 취지입니다."(최정아씨)

문화유랑단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

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다. 휴일이면 컴퓨터나 TV에 매달리던 아이들이 문화유산 답사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림 그리기, 산문 짓기 등에서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는데도 어른들이 보지 못한 면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할 때는 놀라기도 합니다." (임병기씨)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클래식·국악·무용의 하모니

크로스 오버 앙상블 '허브' 공연 18일 5·18기념문화센터

'클래식 악기와 국악기로 연주하는 비발디의 '사계'는 어떤 느낌일까'

크로스 오버 앙상블 '허브'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 이들이 주축이 된 단체지만 '클래식의 대중화'를 선언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색다른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허브가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진행하는 'Over the Classic-Mixed Players'는 클래식 악기와 국악기의 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

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유명한 클래식 음악인 베토벤의 '운명'으로 막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비발디의 '사계'를 가야금, 대금, 해금과의 협연 무대로 선사하며 드보르작의 '위모레스크'를 태평소, 장구, 피아노로 들려준다.

또 랍페라 가수 김우리가 엔리코 모리코네가 만든 영화 '미션'의 주제곡 '넬라 판타지'와 '아베마리아'를 들려주며 영화 '시네마 천국'의 주제음악, 아니의 '플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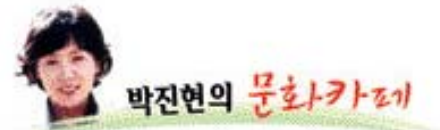


크로스 오버 앙상블 '허브'의 공연 모습.

타임'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등 40여명이 출연하며 허브 어린이 무용단이 춤을 선사한다.

방극만·하건·오미정·조유석·임세원씨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군포 문예회관의 기적

인구 30만 명의 경기도 군포시는 요즘 조용할 날이 없다. 틈만 나면 일을 벌이는(?) 군포문예회관 때문이다.

올 초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신년 음악회를 시작으로 조수미 앤 위너스, 난타, 윤도현밴드 등 굵직한 공연들을 기획해 매진사례를 기록했다. 대형공연이 펼쳐지는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인천, 수원 등에서 온 원정관객들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다.

유명 공연뿐만이 아니다. 지역 주부들을 겨냥한 모닝(아침)콘서트, 입장료를 전원으로 낮춘 '천원의 행복' 등 작은 기획공연들도 평균 80%의 객석점유율을 기록하는 대박을 썼다. 문화생활과는 담을 쌓았던 일부 시민들까지 공연장을 찾은 덕분이다.

이 같은 성과는 치밀한 기획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특목 튀는 아이디어가 빛낸 합작품이다. 군포시는 오랫동안 문화예술 관련 부서에 장빠가 굵은 40대 중반의 공무원들 관장으로 임명된 동시에 전문인력 6명으로 기획·홍보팀을 꾸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향유를 늘리기 위해 올해 기획공연 예산으로만 4억 원을 책정했다. 개관 10주년을 맞는 내년엔 예산을 9억 원으로 늘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마리아 마리아' 등 블록버스터공연을 지역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경남 김해 문화의 전당은 공연계의 뉴스메이커다. 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을 지낸 김승연씨를 초대사장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해 공연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김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문화공간'을 기치로 '미스 사이공'에 이어 지난 10월 '노트르담 드 파리' 한국어 버전 초연공연을 성사시켜 부러움을 샀다. 김 사장의 열정에 힘입어 김해시는 영남의 문화보물지에서 문화 허브로 모습을 바꿨다.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로 눈을 돌려보자. 개관 16주년을 맞은 광주문예회관은 여전히 '대관 전용공연장' (?)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다. 게다가 광주문예회관의 수장(首長)은 문화CEO와는 거리가 먼,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숨을 고르느라' 한직(閑職)으로 굳어졌다.

송년을 앞둔 요즘 타도시의 문예회관들이 지역민의 문화 갈증을 씻어주는 굵직한 기획공연으로 한해를 갈무리하는 것과 달리 광주문예회관은 몇 년째 비슷한 레퍼토리의 국악공연이 유일하다. 광림예산(9천만 원)이 적다 보니 흡인력 있는 대형공연은 커녕 작은 기획공연도 무대에 올리기가 어렵다.

광주의 공연인구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1만 명 안팎에 머물러 있다. 공연장을 찾은 경제적 여유부족과 시민들의 낮은 문화마인드 탓으로 돌리기에 2% 부족하다. 혹여 '대관스케줄' 짜는 데만 열중한 나머지 새로운 관객층출연 소홀한, 광주문예회관의 책임은 없는지 되돌아볼 때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광주점
222-3700

남해관광여행사 225-5544
세진여행사 224-4935
월드항공여행사 225-2255
투어뱅크여행사 224-0022
호남해외여행사 222-7200

가족여행, 은천탐방, 하우스텐보스

日本 무안-후쿠오카 직항 전세기

2008년 1월 8일-20일 6회 운항

- 1. 무안출발 1월 8일 ₩529,000
- 2. 무안출발 1월 15일 ₩549,000
- 3. 무안출발 1월 22일 ₩549,000
- 4. 하우스텐보스 특급3일 ₩689,000
- 5. 무안출발 1월 29일 ₩689,000
- 6. 하우스텐보스 4일 ₩789,000
- 7. 오사카, 무수항공 4일 ₩789,000